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경기를 대폭 하락시켜

~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정체하여 전국적으로 악화돼 ~

(조사대상 2만 3,688사, 유효회답 1만 704사, 회답율 45.2%,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 2020년 2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3.2포인트 감소한 38.7로 5개월 연속 악화, 7년 만에 40을 하회하였다. 국내경기는 후퇴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도 더해져 대폭 악화되었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리스크 요인도 많아, 완만한 후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10개 업계 모두가 악화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이 다양한 업계에 파급되어, 소비자와 밀접한 소비관련기업부터 제조·공급의 소재관련기업까지 공급망 전체에 퍼졌다. 특히 『제조』가 10개월 연속 악화 되었고, 또한 『도매』 『운수·창고』 『서비스』도 대폭 악화되었다.
- 『미나미칸토』 『킨키』 『큐슈』 등 전 10개 지역, 45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이 악화되었다. 소비세율 인상 및 난동(暖冬)경향이 계속됨과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이 전국에 미쳤다.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정체하는 가운데, 관광업이 주요산업인 지역에서는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되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이 5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 2020년 2월의 동향 : 후퇴국면 >

2020년 2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3.2포인트 감소한 38.7로 5개월 연속 악화, 7년 만에 40을 하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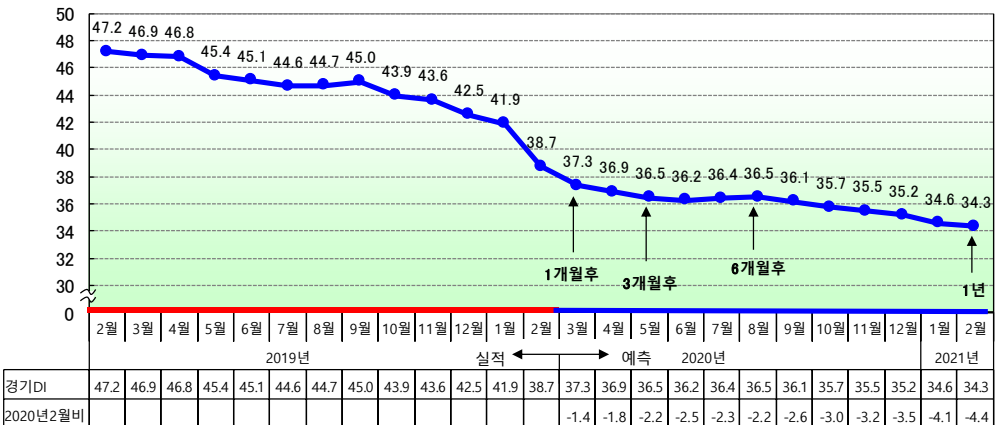
2월의 국내경기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이 전국적인 확산을 보여, 업계·규모와 관계없이 체감경기가 대폭 악화되었다. 중국 국내의 이동 및 생산 활동의 정지로 수출입 관련이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게다가 방일객의 감소 및 각종 이벤트의 자숙, 외출 자제 등 경제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았다. 또한 계속된 난동(暖冬)경향 및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수요감퇴, 세계적인 주가 하락도 하락세 요인이 되었다. 재고조정과 함께 설비 가동률의 저하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이 가진 공급망의 리스크가 표면화되었다.

국내경기는 후퇴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도 더해져 대폭 악화되었다.

< 향후의 전망 : 완만한 후퇴가 계속돼 >

향후는 국내외에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및 수습이 경기의 전망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게다가 미중(美中)무역마찰 및 중동정세 등 해외동향은 계속해서 큰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세계적인 공급망의 재구축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소비자 포인트 환원사업 종료 후의 소비동향 외에, 인력부족의 심각화 및 근로방법 개혁으로의 대응 등이 기업경영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것도 우려된다. 한편, 5G(제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본격화 및 실리콘 사이클의 호전, 도쿄올림픽 등은 호재가 될 것이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리스크 요인이 많아 완만한 후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